이번 주말 목포는 이난영으로 빛난다

28일~6월 4일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풍성

시민대토론회·유가족 토크 콘서트·시립예술단체 공연

모창대회·유품 전시도…생가터·난영공연 등 볼거리 다채

1935년 발매된 '목포의 눈물' 원본 LP판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1916년 6월 6일 출생)을 맞아 '목포의 눈물'의 음악사적·사회문화사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6월4일까지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유가족 토크 콘서트, 이난영 시민 대토론회, 기획전시, 이난영 모창 및 관현악 경연대회, 시립예술단체 합동 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28일 이난영 생가터와 오거리문화센터에서 공연과 강연이 융합된 '목포의 미래를 위한 렉처 콘서트'가 기념행사의 서막을 연다. 또 30일에는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장유정 대중음악평론가, 이윤선·고석규 목포대 교수, 최유준 전남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해 이난영과 목포의 눈물을 통해 목포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근현대로 보는 가수 이난영 시민대토론회'가 개최된다.

31일에는 김시스터즈(김숙자)를 초청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유가족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번 김시스터즈 공연은 지난 2006년 목포시가 대삼학도에 이난영 공원을 조성하면서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 공원묘지 잡초 더미에 묻혀있던 이난영의 묘를 옮겨와 백일홍 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안장할 당시 기념공연을 가진 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오거리문화센터에서는 '목포의 눈물에서 희망으로 전시'라는 주제로 이난영 유품 기획전시가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는 이난영이 즐겨 입었던 한복과 양장, 신발 등 유품을 비롯한 김시스터즈 기증품, 유달산 노래비 역사사진, 2006년 수목장 이전 추모 사진 등이 전시된다.

목포가 낳은 가수 이난영 여사의 뜻을 기리고 명맥을 잇기 위해 마련한 '이난영 모창대회'와 이난영의 노래를 색소폰·바이올린 등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경연대회도 다음달 2일 하당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어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행사는 같은 달 3일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내 유명 가수와 난영가요제 수상자 등 20명의 헌정무대, 모창대회 수상자 공연, 김숙자 클로징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목포시는 이날 김시스터즈 멤버이자 이난영 여사의 장녀인 김숙자씨를 목포 문화예술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특히 내달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목포시립예술단체들이 총출동하는 기획공연으로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하기로 했다.

'찬란히 빛나리, 목포의 이난영'이라고 명명된 이날 공연은 목포시립무용단과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 합창단 등 6개 시립단체 단원 157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의 눈물'은 목포라는 지역적 한계를 초월해 1980년대 호남인들을 하나로 묶은 프로야구 응원가로, 또 한을 대변한 전라도 애국가로 널리 애창되면서 저항성이 담긴 삶의 노래이자 국민의 노래로 자리매김 돼왔다"면서 "목포에는 생가터, 노래비, 난영공원 등 '엘레지의 여왕'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들이 산재돼 있어 앞으로 이들을 연계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해 목포 미래발전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의 눈물 발매 8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0월 열린 이난영 유품 전시회(위)와 지난 2006년 대삼학도 난영공원으로 이난영의 묘를 옮겨와 수목장을 할 당시 열렸던 추모공연 모습.

목포기독병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전남 유일 2등급

목포기독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전남권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최근 입원 진료가 10건 이상인 263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4년 10~12월 진료분 3만 7577건의 적정성을 평가해 공개했다

평가항목은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7개 분야에 점수를 산정해 100만점 5등급으로 분류했다.

전체 평균은 58.2점 (상급종합병원은 89.2점, 종합병원은 52.1점)으로 병원종별 편차가 컸다. 최우수등급 1등급(95점 이상)을 받은 곳은 강북삼성 등 11곳으로 대부분 서울에 분포하고 있으며 2등급도 64곳 중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복지시설 공생원 '열린 쉼터'로…내달까지 나눔 숲 조성

목포지역 내 삭막했던 복지시설이 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열린 쉼터로 거듭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민영아원에 이어 올해에는 대반동 공생원 내에 이용자 치유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녹색 나눔 숲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 복권기금 지원사업인 '2016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녹색자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공생원은 지난 1928년 윤치호 선생이 설립한 전남 최초의 아동복지시설로 시설 내 기존 녹지공간에는 소량의 수목이 계획성 없이 식재돼 있을 뿐 치유를 위한 산책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기존 야외 휴식공간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안전사고 위험 등에 노출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녹색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생원 내 1000㎡ 부지에 수목을 식재해 다채로운 녹지공간을 창출하고, 휴식을 위한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해 치유정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목포서 화합마당

27~28일 체육·축구대회

市, 대규모 행사 유치 성과

전국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목포에서 화합 한마당을 펼친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제10회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배 축구대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

특히 목포시는 올해 관광객 1000만명 달성을 위한 마이스(MICE)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대규모 사회복지 관련 행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체육대회와 축구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사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축구, 족구, 이어달리기(400m) 등을 통해 꿈·사랑·희망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들 참가자들은 또 행사가 끝난 후 숙박을 하고, 오는 29일 목포자연사박물관, 남농 기념관, 유달산, 목포 근대역사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일과 21일에도 '제23회 영·호남 사회복지관 임직원 워크숍'이 목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전남·경남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 400여명이 목포를 찾았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달 26일과 29일에도 코레일 여행상품을 이용한 1000명의 대구·경북권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5월 들어서는 300여명의 여행소리 여행단체를 유치한데 이어 오는 26~27일에는 전국 새마을회 연수회 350여명이 목포를 방문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중앙식료시장 특화장터 조성 사업 용역 발주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중앙식료시장을 특화장터로 조성한다.

목포시는 "낙후된 중앙식료시장의 환경을 창의적이고 특화된 주제로 개선해 활력이 넘치고 생기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목포시 도시재생 중앙식료시장 특화장터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목포시는 간판정비, 바닥포장개선, 화장실 설치, 특화된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이야기와 먹거리가 있는 특화장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역에는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 홍보·운영계획, 대상지 내 지역자원 특색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개발 및 특화된 사업 디자인과 연계방안 제시 등이 포함되며, ▲인접한 유달산과 지역문화·역사자원을 아우르는 창조적 문화 콘텐츠 개발 ▲관광수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증대 기여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노연택 바르게살기 목포협의회장 잇단 선행 귀감

자원봉사자 위한 차량 기증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노연택〈사진〉 회장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노 회장은 최근 국민행복지킴이로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1인승 차량(3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협의회에 기증했다.

목포시 연산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그는 지역 인재육성과 우수 인재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해 '연산 푸른 장학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운 연산동 거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산정농공단지 기업인협의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1구좌 1만원씩을 기부받아 장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학생 해외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봉사는 특별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데 회원들의 이동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차량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함덕해수욕장 해변 수익형 호텔
회사 보유분 마지막 특별분양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바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풀장, 옥상정원 등 수준 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가치가 펼쳐집니다

1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투자금 대비 VAT 제외/50% 대출조건)
2 계약시부터 계약금 X 연 5% 수익지급
3 연 10일 무료숙박 (성수기 2일/비수기 8일)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시행 (주)유탑디엔씨 시공 (주)유탑건설 (주)유탑 CM (주)유탑 신탁 (주)무궁화신탁 운영자문 (주)팰리스호텔&리조트 분양대행사 (주)수현
분양문의 1600-2949
제주현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9번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 올레 19번길)
모델하우스 서구 농성동 481-28번지 (상록회관-라메스타웨딩홀 옆)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접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 / 문평I.C 5분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